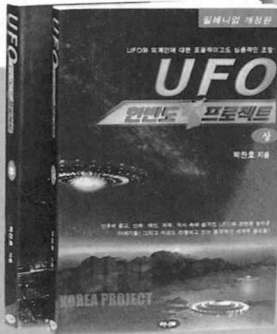


# 갑갑한 일상 벗어나는 정서적 탈출구

인디 만화가 신일섭씨가 뽑은 박찬호의 《UFO 한반도 프로젝트》



“만화가란 3차원을 불편해 하는 종족입니다. 언제나 공상 속을 날아다니죠. 이 책은 제게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줬습니다.”

인디 만화가이자 밴드 ‘이발썬포르노씨’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신일섭씨(31)가 뽑은 책은 《UFO 한반도 프로젝트(전2권)》(박찬호, 하나로)다. 어느날 서점을 거닐다가 ‘UFO와 외계인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인 조망’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본 순간 입자 만났다 싶었다.

“제목부터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저자와 출판사 이름도 무척이나 특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그는 일찍이 UFO에 관심이 많았다. 유체이탈, 달의 뒷편에 사는 생명체, 4차원, 지구의 안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인간들 같은 단어들은 그를 매혹하기에 충분했다.

“만화가란 3차원을 불편해 하는 종족입니다. 언제나 공상 속을 날아다니죠. 이 책은 제게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줬습니다.”

이 책은 “한반도는 외계문명과 인류의 주요 콘택트 포인트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예수도 우주인이 보낸 메신저다. 환웅도 마찬가지로.

“지은이는 고대의 《성경》과 불경,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화와 설화에는 UFO와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책이 지금까지 섭렵했던 UFO 관련서적 가운데 단연 최고작이라고 평가한다. 최근까지의 UFO 연구를 집대성하고 있는 이 책은 UFO 관련정보 및 연구현황과 외계인의 존재를 과학적, 종교적, 역사적, 신화적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UFO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맹신하지 말라는 충고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는 인터뷰 직전까지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드》와 이 책 가운데 어느 것을 꼽을까 망설였다. 《아웃사이드》는 그가 고등학교 시절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일정한 틀에 맞춰 저를 구겨넣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윌슨의 책이 많은 위안이 됐죠.”

《UFO 한반도 프로젝트》를 가장 아끼는 책으로 결정하고도 《아웃사이드》에 대한 미련이 끝내 가지지 않은 까닭이다. — 최갑수 기자

# 열린마당

##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팸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775 서울·종로구경운동88 수운회관1411호  
전화:739-0180(대) 팩스:739-0160

# SAMDUK

삼덕미디어

##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775 서울·종로구경운동88 수운회관1411호  
전화:739-0180(대) 팩스:739-0160  
인쇄·제본공장:465-4707(대)